

# 유월절과 십자가

3 천 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민족을 위한 백성을 처음으로 지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수는 3 백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집트 인도 있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께는 가족이나 부족 단위의 소유가 있었지만,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 받을 권리를 얻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덕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것은 문설주가 실재했기 때문입니다 (출 12:22-23).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전 존재 자체가 피의 희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메시아닉 성도들에게, 피의 희생은 존재의 중심이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온 저희 민족에게 그러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희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겠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동물을 잡아 바쳤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우릴 위한 메시아를 친히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 8:32).

예슈아께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희생을 염두에 두신 채, 미리 계획하고 정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위한 무대의 설치 단계였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 12:27).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은 예정된, 동일한 사건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는 십자가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문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슈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문을 지났던 것처럼 피를 통과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출애굽 때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 그리고 사망과 파멸로부터 나와 자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월절 쉼데르(만찬) 때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민족이 마짜와 쓴 나물의 전통만을 보지 않고, 메시아와 그의 고난에 계시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정원 무덤<sup>1</sup>에서 이번 토요일에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으로 가질 부활 기념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美 국회의 이스라엘 지지

이번 주 워싱턴에서는 327 명의 국회의원(하원 전체의 3/4)이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하는 서신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신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언론과 종교의 자유 등 핵심 가치에 함께 헌신함으로 양국민이 깊고 영구적인 우정을 누려온 미국과 이스라엘은 친밀한 동맹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협력자이며, 중요한 전략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미국의 보안에 굉장한 강점이며, 중동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선전된 양국의 긴장 관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로 인해 이스라엘의 파멸을 부르짖던 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버렸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차기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계산된 위험 부담을 떠안기로 했기에, 실상 그 관계의 힘이 바로 아랍-이스라엘 평화 협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62 년 전 독립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평화와 우호의 손을 내밀며, 유대 민족이 주권적으로 유대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과 원조의 유대가 확립될 것을 호소한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외부 공격으로부터 계속하여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이웃들과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위험을 무릅쓰며 서약을 보충했습니다.

---

<sup>1</sup> The Garden Tomb

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의 모든 이들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인식할 때,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나라의 입장에는 차이가 일절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별히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오랜 전략적 동맹으로서 그러한 견해차는 조용히,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해결할 때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처럼 우리의 중동 정책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적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의 독립 유대 국가로서의 위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 아비브의 메시아**

지난 몇 주간 이스라엘의 신문들에는 전면 광고가 이어졌는데, 그것은 텔 아비브에서 스스로 ‘마쉬아흐<sup>2</sup>’라고 하는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해서 1 인칭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정부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다음 정부는 자신의 것 곧 메시아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박두했으며 열국이 모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조직을 이미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 선지서가 많았습니다. 그는 또한 파멸을 면할 유일한 길은 모든 랍비의 전통을 따르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진노에 대한 그의 예언은 실로 열국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이스라엘 간에 긴장이 감도는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몇 해 동안,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점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점점 간절해질 것입니다.